

 해양수산부		보도자료		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	배포 일시	2021. 3. 25.(목) 총 2매(본문 1, 참고 1)		
담당 부서	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	담당 자	• 과장 김형덕, 주무관 정운혁, 담당 문수진 • ☎ (051) 410-1005, 1030		
보도 일시		배포 즉시 보도 가능			

동해어업관리단, 조업구역 위반 기선권현망 검거

- 어업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 -

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(단장 이세오)은 25일 경북 경주시 수념말 동방 약 2km 해상에서 금지된 구역을 위반하여 조업하고 있는 기선권현망 어선 ‘A호’를 적발했다고 밝혔다.

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1호는 3월 25일 07시 40분경 허가받은 기선권현망 조업구역으로부터 약 0.7해리를 벗어나 그물을 양망하는 통영선적 ‘A호’를 발견하고,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였다.

한편, ‘A호’가 적발된 경북 경주시 수념말 인근 해역에는 수 십 척의 기선권현망 어선과 연안어선들이 혼재 조업하고 있으며, 기선권현망의 연안 조업으로 인해 어구손괴 및 조업구역 위반 신고 등 잦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.

근해어업은 각 허가마다 조업구역이 정해져 있으며, 특히 기선권현망 어업은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남에서 조업이 허가되어 있으나 A호는 허가된 조업 구역을 벗어나 조업 중 적발되었다.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(1차 60일, 2차 90일, 3차 취소)을 받게 된다.

이세오 동해어업관리단장은 “우리 단은 허가받은 구역을 벗어나 조업하는 등 연근해 어업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으로 대응할 계획이다.”라고 밝혔다.

